# 대통령 후보의 유머 대결

미국의 앤드류 존슨은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읜 뒤 너무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못하고 양복점에 들어가 일을 배우게 되었다.

18세 때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내로부터 처음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밤을 낮 삼아 공부에 열성을 다하여 마침내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따고, 테네시 주의 주지사와 상원의원까지 당선되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게다가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부통령을 역임하다가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때 반대 당 쪽 후보가 합동유세장에서

"유권자 여러분, 앤드류 존슨씨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 주제에 어떻게 감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까?"

하고 조롱 섞인 야유를 퍼부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등장한 존슨은 다음과 같은 유머를 응수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도 다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학교에 다니셨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으며, 더구나 예수는 양복쟁이가 아닌 목수가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통쾌한 유머로 대응하자 유권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폭소가 터져 나왔고, 그는 무난히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또 한번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존슨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등불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벌보다 사람됨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의 풍토를 만든 것이다.